

“광주 문화혁신 통해 영역 넓힐 것”

김윤기 신임 광주문화재단 대표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문화혁신과 문화자치를 담대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분권은 문화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는 데서 실현된다.”

지난달 18일 취임한 광주문화재단 김윤기 대표이사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방향·역점 사업 등 향후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계획서 표절’ 등 논란을 의식한 듯 시종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재단의 운영 방안 등을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재단 직원들의 협조로 조치가 안정감있게 꾸려져 온 것에 감사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밝은 전망과 변화를 모색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김 대표이사는 재단의 정책방향을 광주문화 의제를 설정하고 문화를 혁신하는 데 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글로벌리즘을 주도하고, ‘5·18과 예향’으로 대변되는 문화자산을 재평가해 이를 토대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그는 “청년층 중심의 새로운 문화지형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주목, 문화예술영역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문화재단은 지난날까지 청년



청년층 중심 문화지형 활성화 예술인 지원기금 지속적 확보 미디어아트 중심지 구축 노력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를 토대로 청년문화정책 포럼 등을 마련해 청년문화 활성화 정책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만의 색깔이 있는 문화특화정책 및 사업 개발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다양한 시민 소장품 중심의 ‘100컬렉션’,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지원 정책을 도출하기 위

한 ‘광주예술인 백인보 프로젝트’ 등도 추진한다.

김 대표이사는 재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금 확충에 대해서도 복안을 밝혔다. “현재 시로부터 출연한 기금이 97억인데, 향후 3년간 50억여 원을 더 확충해 150억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재단 설립조례인 ‘광주시는 매년 일정액의 출연금 출연’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나아가 기금조성TF팀을 효과적으로 가동해 기금 확보에 매진하고, 광주형 문화메세나인 ‘문화보듬10000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 대표이사는 “올해 문화예술 펀딩프로젝트 ‘만세만세만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모금이 완료됐다”며 “향후 기업과 예술인의 1대1 매칭을 통한 기금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광주 문화의 미래자산이라 할 수 있는 국제적 미디어아트 허브 구축도 빼놓을 수 없는 역점사업이다. 올 12월 개최되는 제6회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확대 강화해 미디어아트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AMT(Art&Media Technology) 센터 조기 건립을 추진하고 미디어랩으로 특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김 대표이사는 “장르 간 혼용합 프로그램 개발과 소수자 문화 현상에도 주목해 미래지향형 사업으로 연계하겠다”며 “아울러 근래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취향 중심의 문화 활동을 마을공동체운동, 생태운동과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

꽃중년 아마추어 꿈의 무대 ‘금호 시니어 콘서트’



‘금호 시니어 콘서트’ 무대에 오를 ‘루나앙상블’.

12일·13일 금호아트홀

‘제 1회 금호 시니어 콘서트’가 12일~13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금호 시니어 콘서트’는 만 40세 이상 아마추어 클래식 연주자에게 연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다.

연주자들은 지난 7월부터 모집했으며 오디션과 한 달여의 연습기간을 거쳤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연주자, 음악을 전공했지만 전문 연주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음악인,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은퇴한 연

주자 등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들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부문에서 모두 13개 팀, 75명의 중년 연주자들이 앙상블, 합창, 독주 등 다양한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12일 열리는 무대에는 피아노 이정원, 테너 장흥식, 소프라노 김종래, 클라리넷 김기현, 플루트 오희연, 산울림합창단이 출연한다.

13일에는 플루트 이상열, 비올라 송민주, 소프라노 김순영, 바리톤 윤민재, NCC앙상블, 루나앙상블, HYMN 스트링 앙상블이 무대를 꾸민다.

중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소프라노 김종래씨는 “중학생

시절부터 성악가가 꿈이었지만 이루지 못하고 보건교사로 재직하면서 꿈이 간직해왔다”며 “이번 콘서트에서 ‘베에슈’와 ‘내 맘의 강물’을 노래하는데 정말 너무나 즐겁고 기쁘다.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 매일 설렌다”고 소감을 전했다.

클라리넷을 15년간 취미로 연주해 온 김기현씨는 “아내가 생일선물로 준 클라리넷 덕분에 음악을 시작하게 돼 재미와 성취감을 느낀다”며 “큰 무대에서 연주해본 경험이 없어 부담도 있지만 이번 콘서트에 출연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문의 062-360-8432.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예술인들의 가을 무대... 13일·14일 아트페스티벌 part II

‘2017 8th광주예술아트페스티벌 part II’가 오는 13일~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광장에서 펼쳐진다.

한국예총광주광역시연합회(회장 최규철)가 주최하고 광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7월 건축, 미술, 사진, 문인들의 전시기획전으로 진행된 PART I 과는 달리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화, 음악인들의 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13일 오후 6시 광주국악협회의 ‘길놀이와 판곡’ 공연이 이번 축제의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민속놀이 강강술래’, ‘발레’, ‘뮤지컬 갈라’ 등의 무대가 이어진다.

이날 오후 7시 15분부터는 광주 타악그룹 ‘얼쑤’가 개막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연예협회는 ‘신자유’, ‘리틀싸이’, ‘워킹애프터유’ 등의 공연을 준비했다.

또, 고전무용과 현대무용 등의 무대가



지난해 광주예술아트페스티벌 공연 모습.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며, 광주여성실러스트 앙상블의 무대도 펼쳐진다.

이밖에 ‘가을밤의 무비’, ‘슬픈 결혼사진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며 평양예술단의 초청공연도 마련됐다.

14일에는 오후 5시~6시 한국예총경북연합회의 마당극으로 축제가 시작된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무대와 ‘남도민요’, 윤덕현의 ‘재즈 킨트’, ‘퓨전 마당극’, ‘진도복놀이’ 등이 준비됐다. 유상호가 색소폰 연주를 선보인 데 이어 영화 OST가 흐르고 무용 ‘젊음의 향연’, 초청 공연 ‘댄스컬’과 ‘아크로바틱’도 준비돼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실내 공연장을 찾아야만 볼 수 있었던 전문예술가들의 작품을 야외에서 감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062-528-9207.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도시의 위기, 공유경제가 답이다

정은주 교수 ‘인구감소시대 도시만들기와 공유경제’ 발간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 문화가 집약된 공간이다.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 해온 살아있는 역사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의 도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적잖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 바로 ‘속도’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했던 시대가 없을 만큼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많은 도시 생존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급여마저 주지 못할 형편에 놓인 곳도 적지 않다.

왜 도시는 이같은 쇠락의 운명에 처해진 것일까? 그리고 이를 타개할 대안은 없는 것일까?

정은주 전남대 지역개발학전공 강의 교수가 최근 펴낸 ‘인구감소시대 도시



만들기와 공유경제’(전남대 출판문화원)는 도시를 살려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정 교수는 실패한 도시

경영은 모두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본다. 현실인식이 배제된 대응전략, 보여주기식 정책, 의사결정의 폐쇄성 등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자원의 낭비와 자원의 훼손으로 “도시 거주자의 삶은 더 피폐해질 것”이라며 결국 지역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도시의 최종 목표는 사람 사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는 문제의식

에 토대를 두고 도시의 방향성을 고민한다.

제1부에서는 도시 바로보기와 낯선 도시의 도시 민낯을 최대한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본다.

이제까지의 도시가 특화된 생산능력을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면 미래의 도시는 생존을 위한 교류와 융합이 강조되는 창의적인 도시를 목표로 해야 한다.

제2부에서는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해 살펴본다. 공유경제를 매개로 자원을 나누고 활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논리다.

저자는 “성장의 한계와 저성장, 역성장 양상이 논의되고 있는 현대도시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접근방법의 하나로 공유경제가 자리하게 되었다”며 “기술발전으로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공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래 전략의 하나가 되었다”고 강조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330㎡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5백만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환,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지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